

## 선교와 문화 명령

단순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계의 종교들이 우주에 관하여 세 가지 주요한 “3M”의 견해, 즉 마나(Mana)의 견해, 마야(Maya)의 견해 및 마스터리(Mastery)의 견해를 명백히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필자는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에드문드 클라우니 교수로부터 힘입은 바가 크다). 실제에 대한 마나 견해는 모든 것을 다양한 차원에서 마치 전류가 많이 흐르고 또 치명적인 충격을 가하는 신비적인 능력이 배어 있는 것으로 바라본다. 마나는 극단의 주의를 요구하거나 또는 요술에 의하여 조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마야의 견해는 모든 것을 미혹과 착각된 것으로 바라보며 또 인간이 취할 유일한 참된 자세는 그같은 것들로부터 초연함을 보이는 것이다. 물론 힌두교와 불교가 이와 같은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견해인 마스터리 견해는 우리의 환경을 조정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정경의 기록된 것 중 가장 오래된 맨 처음 것부터 우리 인간은 땅과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명령을 인류가 받았음을 본다. 이 인간은 창조주의 일꾼으로서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요청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취하며, 마음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가진 인간은 문화에 대한 책임을 상속받으며 문화 명령을 기쁨으로 부여받은 것이다.

그러나 성경 독자들에게 있어서 처음부터 문화 명령이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과연 구약성경이 한 유형의 마스터리 견해를 강조하고 있고, 신약의 강조는 다른 유형의 마스터리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가? 몇 가지 쉬운 실례들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9장과 시편 8편에 반사된 것으로서의 창세기 1장은 유인(類人)의 피조물들을 인간에게 복종하게 만들라는 요청을 한다. 그러나 복음 선교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라고 요청한다. 구약의 바벨 사건은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역사하신 것임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인간들이 흠어져서 문화 명령을 이행하게 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반면에 오순절 사건은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방언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을 흠으시

서 선교 명령을 성취하도록 하신다. 구약성경은 땅의 영역을 개간하고, 혈통에 관심을 기울이며, 지역 경계를 확정하는 모습을 나타내 준다. 신약성경은 지역 구분이나 혈통 및 족속이나 풍토를 초월하여 영적 지배력하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교회는 비슷한 속성에 대한 사상적 분열이 있음을 보여 준다. 반문화적이며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는 무리들은 전적으로 다른 세상적인 것을 강조하지는 않았는가? '사회 복음'을 옹호하는 자들과 같은, 즉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이 세상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전혀 다른 그룹들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영적 복종과 하나님 지배하에 있는 영적 상태를 전혀 무시해버리는 경향은 없는가? 우리들이 속해 있는 개혁주의 견해는 어떤가? 우리들에게는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지 않는가? 늦기는 하지만 문화 명령에 대한 많은 열띤 논의가 있다. 그러나 선교 명령은 논의의 주제로서는 상당히 쳐져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어떻게 이 둘을 서로 연관지을 수 있을까?

동시에 우리가 이 둘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있었던지 간에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으며 뒷걸음질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크리스토퍼 도우슨(Christopher Dawson)은 기독교가 과거에 이교도 나라의 종교보다 월등한 것임을 입증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교도 국민들은 과거지향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마태복음 28장을 반영하고 있는 레슬리 뉴비진(Leslie Newbigin)은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즉 지구 끝까지, 시대의 종착역까지 나아가는 성격을 지닌 신약 교회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어떠한가? 과거보다 더욱 비대하여졌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1912년 프린스턴 신학교 개강 세미나 때 메이첸 교수는 "기독교에 대한 거절은 대체로 수많은 사례들이 무관심한 것들임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기독교야말로 참된 것이라는 사실이 더 이상 납득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또 덧붙여 설명하기를 "오늘날 기독교를 전하는 데 가장 큰 방해거리는 지적인 영역에 놓여있다."고 하였다. 1912년 초기에 그가 관찰한 것은 "기독교는 30년 전에 힘을 발휘했던 것보다도 오늘날 문명화된 세상에서 기독교는 강력하고도 직접적인 영향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더불어서 사회에 대한 활력적이며, 통찰력이 있으며 연관이 있는 기독교가 될 것을 촉구하였다.

도우슨 교수는 그와 동일한 문제를 약간 다른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다. "만일 한 세기가 종교의 분열로 말미암아 기독교의 연합을 붕괴시켜 버리면, 그리고 두 번째 세기가 크리찬의 삶의 방식을 개인적인 행동 영역에 국한시켜 버리며, 또 사회와 정치의 외적 모습이 각질로 가도록 방치해 버린다면 그다음 제삼 세기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재에 대한 객관적인 표준으로서 외부적인 사회적 세계를 받아들일 것이며, 또 신앙과 종교의 세계를 주관적이고 비현실적이며 착각에 빠진 것으로 바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도우슨 교수는 세속화의 과정이 믿음의 상실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 내부에서 사회적 관심에 대한 망각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믿고 있다.

어떤 견해가 맞는 것이든지, 즉 메이첸 교수의 지적 불연관성 이론이나, 도우슨 교수의 사회적 무관심 이론이 맞는 것이든지 이 두 가지 이론은 교회에 의하여 대중들에게 비추어지는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교회의 입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사회적 관심에 결핍할 수 있는가? 도우슨 교수는 말하기를 "역사의 과정은 넓고 평온한 강물로부터 파괴적인 큰 폭포 속으로 급속히 변모하여 갔다."고 말한다. 더구나 국제적인 악당들의 손아귀에 있는, 돌연히 운명을 전환해 버리는 무시무시한 무기의 위협이 매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들 가운데는 마약 중독에 걸려 부르짖는 자들, 변태적인 살인자들 및 문어 발처럼 많은 범죄 조직들이 있다. 만일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우리는 거리에서 폭력적인 데모들도 목격하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문제들을 장황히 늘어놓고 싶지 않다. 그러나 진실로 계시록에 나오는 네 사람의 말탄 사람들은 그같은 일을 하도록 질주하며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교회는 교회가 늘 해 오던 것을 실천해야 한다. 사회의 모든 병폐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이 세상의 권세잡은 자들에게 예속된 데서부터 나오는 것임을 경고해야만 한다. 그러나 세상을 향하여 회개를 촉구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라고 촉구함에 있어서(여기의 필자는 넓은 의미에서 교회는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임) 교회는 문화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리차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취한 다양한 입장을 요약하여 설명하였다. 즉, 그리스도는 문화

를 대적한다는 것과(Christ against Culture), 그리스도는 문화에 적응하였다(Christ accommodated to Culture) (리첼 같은 인물이 그렇다)는 것이다. 또 문화와 합성된 그리스도(Christ in synthesis with Culture, Thomas Aquinas의 주장), 그리스도와 문화는 서로 맞지 않는다(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니버는 여기서 키엘케고르와 같은 다른 사람들 명단에 마르시온과 루터를 삽입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문화의 변형자(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라는 변해들을 보여 주었다. 이 마지막 범주에 니버는 몇 가지 자격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어거스틴과 칼빈을 포함시켰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신들의 전통이기도 한 그러한 전통을 위하여 니버는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 세상의 문화를 변형시켜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싫어하는 자들 사이의 가장 큰 정반대의 길은 종말론적 완성과 양과 염소들의 두 그룹들의 최종 심판의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선교는 명령이다. 그러나 아직도 실천이 다 되지 않는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들의 문화적 및 사회적 참여의 속성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취할 지침들을 위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보자. 구약성경에서 우리는 즉시 인간과 자연 환경이 서로 맞대고 있음을 직면하게 된다. 인간은 우선 에덴 동산에서 환경을 지키게끔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 동안만 거쳐해야 하는 본부에 불과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에덴 밖의 세상은 부분적으로 문화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기술되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창 2:12). 그 땅에 수목과 식물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아직 없었기 때문이었다(2:5). 가인의 후손들은 목축업을 소개하며, 악기들과 철을 사용하는 대장장이 직책을 소개하고 있다. 칼빈은 말하기를 이것은 그 자체를 그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의 목록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어진 위대한 문화적 공헌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라멕에 대한 이야기는 문화적 성취가 오히려 타락과 범죄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라멕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 “라멕이…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창 5:19~22) 어떤 해석자는 라멕은 한 아들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였고 사람을 죽였으며 그 일을 자랑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찬송가로 생각한다면 통탄할 만하며 흉악한 신학을 보이는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끝을 맺고 있다.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칠배이리로다” (창 5:23, 24).

그러나 의로운 노아의 후손인 셋의 자손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된 문화적인 업적에 있어서 그 시대를 수놓았다. 그 일은 물론 세상이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노아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시된 크고 강한 방주를 만들었고 정죄받은 세상으로부터 살아 남는 오직 한 길을 위하여 각종 동물들을 수용, 관리하였다. 무섭고 파괴적인 물살을 헤치며 이리저리 떠다니다가 노아는 마침내, 마치 신대륙에 상륙하는 것처럼 땅에 발을 내디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증거(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남으로써 노아는 하나님께 경배하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구약성경은 필자가 당분간 의도적으로 부르고 싶은 소위 문화적 영웅들로 가득 차 있다. 부족의 대족장으로서는 선구자적인 길을 간 아브라함, 애굽에서 정책가요 총리로서의 면모를 마음껏 발휘한 요셉, 종살이 하는 민족을 구원하며 율법을 받아 준 모세, 군사적 지도자요 구역을 나누어 준 여호수아, 이방 세력의 압제 밑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을 때때로 구원하는 일을 감당한 사사들, 음악가요, 시인이요, 용사이며 왕인 다윗, 한 나라의 임금이요, 건축가요, 지혜자요, 저술가인 솔로몬, 멸망당하는 두 왕국의 임금들에게 조언자로서의 명성을 날린 다니엘, 애국주의자인 에스더나 새 도시 건설을 이룩한 느헤미야 등 수없이 많이 있다. 그들의 신앙적인 행동들,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된 구원의 역사들은 참된 문화 명령을 수행한 청지기들로서의 뛰어난 면모를 보여 준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으며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은사들을 받은 자들이다. 다윗은 다음과 같은 시를 읊음으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

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낫활을 당기도다”(시 18: 29~34). 우리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운” 지도자를 본다(행 7:22). 사막을 여행함에 있어서 이동이 가능하며 조립식으로 되는 예배 처소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은 엮어 짜는 숙련된 기술자들을 예비하셨으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들을 마련하셨다. 브사렐에 대하여 모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일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였고 또 그와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출 35: 31~35).

하나님께서서는 단순히 손으로 하는 기술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지식과 지혜 및 분별의 정신도 주셨다. 단 1:17 말씀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여기의 필자는 E. J. Young의 해석을 발췌한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를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영 박사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주해하였다.

이 젊은이들이 가르침을 받은 모든 학문과 지혜는 미신적인 실습들도 포함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식과 명철은 일종의 분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진실한 것은 받아들이고, 거짓된 것은 배격할 수 있는 분별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다. 이 젊은이들은 이교도 나라에서 여호와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들은 모세가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던 것이 필요했던 것처럼 바벨론의 모든 지혜를 통달해야만 했을 것이다(다니엘 주석 참고).

그러나 신약성경은 우선적으로 이 모든 것들과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신약성경 메시지의 맨 처음부터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

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된다. 이같은 모습은 명백히 문화와는 거리가 먼 모습이다. 그가 바로 자기와 같지 않은 자, 국가나 교회의 후원이나 보조가 없이 살아가야 하는, 어렸을 때부터 익혀 온 목수직을 버린 나사렛 예수를 소개하고 있다. 이 예수는 세속적인 직업을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구하였으며, 집이나 전대도 가지지 말고 옷도 두 벌 이상을 입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다. 그는 둘째 아담이지만 땅을 가는 일이나 동물들을 돌보는 일에는 전혀 분주하지 않았다. 그가 동산에서 행한 것에 대한 기록은 기도하신 것뿐이다. 그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사회와 문화 창달을 위하여 어떤 청사진도 제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타락해 가며 이탈해 가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에 도끼를 들이대었다.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보내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아다가 불살라 버리시는 예수님이였다. 화려하게 꾸며 입고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에 의하여 그의 왕직이 도전받을 때까지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다."고 하셨다.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예수는 가족이나 부와 지위 등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다. 그의 제자들의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예수는 창세기와는 전혀 다른 명령을 주셨다. 즉 세상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다. 자신이 자기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제자로 삼았듯이 말이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가장 인테리요 세련된 자요 사도들 중에서 학문이 가장 많은 사도 바울을 접한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지 않고 회당과 회당을 전전하며, 또 도시와 도시를 순회하면서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궁극적으로 소멸하시는 불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다. 그의 서신들은 그의 학문의 편협한 모습을 반영한 듯이 보인다. 즉, 그는 예술이나 건축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는 생활 수입의 방편으로서 아주 초라한 것인 장막 짓는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필자가 재차 신약성경을 들여다 보았을 때 보다 더 호의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 문화 행위에 대하여 신약성경이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서, 비록 그의 삶의 방식이 금욕적이고 문화 창달이나 활용에 있어서 무관심한 듯이 보일지라도 예수는 복음 선포의 사명과 더불어서 문화에 대한 의무감과 함께 연결하여 풍성한 관계를 갖도록 행동하시고 말씀하셨다. 이 논문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하려는 점이 바로 이 연합 부분이다.

첫째로, 예수는 심지어 기적을 베푸실 때라도 그의 제자들을 문화적인 협력 관계 속에 병합시키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는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으나 종들은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가득 채워야만 한 것이다. 그는 어부 훈련 학교를 창설하셨지만 그의 제자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 그물을 던져야만 했다. 그는 5천 명을 먹이셨지만 제자들이 분배하였고 남은 것도 거두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죽음으로부터 나사로를 살리셨으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굴리며 수의를 벗기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므로 오순절 때도 방언의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진 그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사용되는 동일한 문화적 수단들을 종종 이용하였다. 그는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하시려고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다. 그는 설교하시기 좋은 위치를 위하여 종종 언덕을 애용하셨다. 그는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전의 정화 작업을 위하여 채찍을 사용하셨다. 따라서 바울 역시 배로 여행하였고, 장막을 만들었으며, 편지를 썼고, 구제금을 모금하였다. 이 모든 것은 더 멀리 선교하기 위한 것이며 교회들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 이 모든 것들 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학문적인 교만과 철학적인 궤변들을 반대하는 그의 서신에서조차도 바울은 독특한 문화적인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는 논쟁거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다(고전 6장). 또 그는 성 관계나 결혼 문제에 관해서도 가르쳤다(7장). 심지어 남자와 여자들의 머리 모양이나 길이를 언급하고 있다. 여러 서신들 속에서 바울은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 종과 주인 및 국민들과 통치자들의 사회적인 연계성 위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이다.

## 봉사 행위와 분리되지 않는 문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섬김의 기능과 문화적 관심거리가 분리되어 나타나는 것이 구약성경에서는 한 군데도 없다.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문화적 행동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언급은 하늘나라에 관한 설명 부분에서 찾아진다. 결혼 예식이나 축제 기간에 나누신 대화의 기록들은 언제나 그의 나라에 대한 증거의 일부분이었고 또 그 나라를 위한 사역이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을 한쪽으로 제쳐놓지 않으셨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동료인



의사 누가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이점을 지역 문화 발전이나 의술 사용에 대한 표현들과 함께 확대하여 설명하지는 않았다. 이들 여행객들은 결코 여행자들이 아니었는가? (Were these travellers never tourists?) 물론 누가는 도르가가 만든 옷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로지 그녀의 자선 행위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이나 누가는 그 힘든 선교 사역을, 음악을 즐기면서 수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 그들의 선교 여행 가운데서 과거의 찬란한 건축물들, 예술 작품들을 돌아볼 기회를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을까? 당신이나 내가 아레오파구스를 지나오면서 파르테온 신전이나 그 신전의 아름다움을 조금도 언급함이 없이 지나쳐 올 수 있겠는가?

바울은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그대로 지내도록 촉구하고 있다(고전 7:20). 그는 힘써 일하라고 촉구하였고 가족들을 돌아보라고 하였다. 추측컨대 교회 직분자들의 역량이나 선포 사역의 기능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해야 한다기보다 성도 개개인이 그의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의 동료들과 더불어 문화 명령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 할 자들이었다.

따라서 속사도 시대 이후 교회 모습이 그러했음을 알 수 있다. 알버트 히마(Albert Hyma)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할 성도의 의무는 위대한 교부들과 중세 학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인식된 것이었다. 루터나 칼빈은 성 어거스틴이 그 주제에 관하여 말한 것을 찬성하며 읽었다.

일해야 하는 의무는 사람을 품위있게 한다고 주장한 어거스틴에 의하여 아주 강력하게 강조되었다. 어거스틴은 다양한 손재주로 만드는 것들, 그리고 수동적인 노동을 통해 생산되는 물품들을 아주 감탄하며 주시하였다. 산업의 설치, 농작물 개발 등과 시, 음악 및 수학을 좋아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다... 오로지 영적인 사람이 되기만을 원하고 육체적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나타낼 뿐이다(Renaissance to Reformation, pp. 485ff.).

나이젤 리(Nigel Lee)도 그와 같은 사상을 얼마나 깊이 펼쳐 나갔는지를

기록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인간의 과학적 및 철학적 임무는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주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아주 심하게 방해 를 받았다. 그리고 노아와 다윗에게 재차 부여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원칙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종 말 후에 오직 종말론적으로 완전히 성취될 것이며 아직은 최악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불러, 있는 처소에서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임무를 바르게 실천하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삶을 영위하지 않아야만 할 이유가 인생의 어떤 부분도, 단 한 순간도 없기 때문이다(Calvin on Sciences).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놀라움으로 읽게 되는 것은 칼빈이 시편 8편을 주해한 부분이다. 하나님은 천지에 있는 모든 풍부한 것들을 인간의 사용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인간의 지배가 태양과 달 및 별들에게까지 미쳐야만 하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우주를 여행하는 우리들이 아닌가! 로켓을 발사하고 달의 표면에서 흙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헨리 반틸 박사는 아브라함 카이퍼가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주적인 인간의 개발은 확실히 영원한 세계까지 미치게 될 것이며, 물론 죄의 해로운 영향을 감소할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기록하였다(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문화에 대한 탈빈주의적인 개념). 아브라함 카이퍼는 다음의 본문 말씀에 호소하고 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 3:21),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계 14:13)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마 25장) 등이다.

확실히 여기에는 문화 명령과 동시에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구하는 성도들의 상호 관계와 상호 작용을 연구할 강한 이유들이 있는 것이다. 명령하시는 그리스도는 열방을 제자로 삼으시는 사역을 이루실 수 있는 그리스도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ἐξουσία)”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의 권세와 그 일을 이루시는 그의 전능하심을 지적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다. 그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모든 보물들

이 숨겨져 있다. 바로 그 분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고” 그것은 곧 “성도를 온전케 하며 (καταρτίζω),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 11, 12).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개념은(The idea of equipping the saints) 히브리서 13:20, 21에서 ‘카타르티조’가 축복 기도 속에 사용된 광의적인 바탕 위에서 더욱 드러난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교회 직분자들을 위한 맥락에서 온전케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사용된 말씀이다. 그것은 문화 명령과 결부시켜 생각하는 영적 설비를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활동들의 문맥 속에서 고양된 것들은 손 대접하는 것(13:2)과 선행(16절)과 이러한 권면을 포함한 편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22절).

우리가 그러한 서신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가? 우리는 나그네들을 대접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육체적인 수단 없이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등을 실천할 수 있는가? 바울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함께 묶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고후 9:8, 10).

### 저주에 의하여 지체되고 손상된 문화 발전

한편으로 우리가 선교나 구제 활동에서 직접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기를 요청하는 문화의 순수한 형태는 사실상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름길을 보이시거나 막힌 것을 허물으심으로써 문화 발전을 용이하게 달성하도록 만드시지 않는다. 그 당시의 온갖 혼돈과 비참한 환경을 보시면서도 주님은 노예를 없앤다거나 독재자를 추방하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 예수는 정부 조직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교육 및 경제를 위한 계획서를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으셨다. 성경은 당시의 미약한 문화적 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게 전해지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손으로 기록하는 데 오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며, 책으로 만드는 데 아주 비싸게 먹히었다. 설교는 소리를 확산시키는 기술이나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한 방송 기술이 증폭되는 것을 수 세기 동안 기다렸다. 병자들을 돌보는 것도 주어졌지만 의학적인 처방책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물론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가 치료약으로서 제시될 수는 있을 것이지만 특별한 언급을 하신 것은 아니었다. 천여년 동안 병자들은 비참한 가운데서 마취에 대한 지식, 내과 기술, 항생 물질 등에 대한 지식의 결핍을 괴로워하였다. 농부들은 비료, 농약, 수분 작용 및 육종 방식 등에 관하여 아주 고통스럽게, 그리고 천천히 습득하여 왔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사회적 및 정치적으로 큰 혼란이 있는 지역들을 생각하여 보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타락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인지를 상기케 된다. 우리가 회심한 자요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측은하게 생각되지 않는 저주의 물리적인 측면을 부끄러운 기억과 함께 우리는 복종으로 맞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고통 가운데서 자녀를 출산한다. 땅은 여전히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유아기 삶을 산출해야만 한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에 의하여 위로함을 받는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 7:11).

그렇다면 신약성경에 있어서 문화적 행위들은 직접적으로 목회 사역에 임하거나 간접적으로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행함으로 성도들의 증거의 삶을 유지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고, 또 곤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특별히 돌보는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약 1:27). 따라서 우리의 문화적 활동들이 복음을 전하는 필요성에까지 확장되며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는 것과 연결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일 문화적인 보조 활동이 복음을 신속히 확장한다면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바로 문화적 우선권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여러분이 도덕적인 퇴보, 사회 구조의 기강이 흐트러지며, 생활 양식이 부패해지고, 심지어 자연 환경까지 오염되어 가는 것을 보며 놀라는 것을

느낀다. 우리의 영향력을 가지고 우리는 보다 나은 생활과 건강 및 미의 융성함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악취가 나는 빈곤의 상처, 느슨함, 변태성 및 오염뿐이다.

타임 잡지는 최근에 보도하기를 현재 생태학의 신학이 있다고 하였다. 바로 '생태학 신학자들'에 의하여 묘사된 깊은 관심은 그 유명한 논쟁인 바늘귀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부터 로스엔젤레스에서 얼마나 많은 바늘귀가 그 위에 서 있을 수 있느냐라는 논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그들의 진술을 주목하여 보자. "창조의 가치를 믿는 연약한 믿음은 창조주를 믿는 신앙을 침식시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반대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인간은 이제 이기주의자로 전락하여 버렸고, 심지어 진보한 사람들조차도 생태학적인 생존을 위한 동기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원칙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기사에 동의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가치를 믿는 연약한 믿음은, 그리고 피조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연약한 믿음과 빈약한 순종은 단순히 생태학적인 것에 도달함이 없을 뿐 아니라 영원히 생존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다. 클레어몽트(Claremont)에 있는 신학교의 존 B. 콕(John B. Cobb)은 '환경의 진전과 문제들에 대해 인간의 감각을 둔화시키는 현상적인 영향력의 고치(cocoon, 자기 아성을 쌓고 다른 세계를 모르는 고치 속의 누에 같은 자-역자 주)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필자는 한결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는 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둔화시킬 수 있는 문화적 율가미들의 고치에 관하여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낯선 자들이요 순례자들이다. 다른 표현을 하자면, 우리는 적지에서 싸우는 군인들이요, 우리의 여우 굴을 아직은 맨손으로 전환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전쟁은 결정적으로 승리하나 변천 과정에 있는 행동들을 소탕하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무너진 여리고성으로 주님 앞에서 힘차게 들어가야 한다. 트럼펫을 내려놓을 시간이 온다. 그러나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닌 것이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학생 여러분과 교수님들께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먼저 여러분이 문화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 드린다. 또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학문의 깊이나 풍부함을

인하여 감사 드린다. 더욱이 과학이나 문화에 관한 과목들을 다루고 있음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가르침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전도 활동에 있어서 지성주의적 경향, 또는 문화 부정적 자세나 상반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모든 수단을 다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위하여 우리의 재량에 따라 모든 도구를 사용하도록 하자.

그러나 분명히 할 것은 우리가 문화 자체를 위하여 무엇을 한다든지, 또는 레크리에이션의 형태나 습관 및 취미 정도로 단순히 문화적 증진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이 시급할 때 도구를 숫돌에 가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예수가 그의 제자들을, 땅을 뒤흔드는 복음을 전파하도록 이리 가운데 보내게 될 때 예수의 전도 학교의 상태를 생각해 보라. 3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부지런히 배웠고 그 모든 내용은 일상 생활의 흐름 속에서 얻어진 것이었다. 도서관도 없이, 책상이나 칠판, 마이크나 필름 및 복사기 등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습득하였다. 지정된 장소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제자에게 즉각적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임명하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이 무대나 시간을 주목해 보라. 한 사람이 배반하고 없기 때문에 12 명이 아닌 11 명이였다. 그들 중의 몇몇은 아직도 그들이 경배 드리는 그 예수에 대하여 의혹을 품고 있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자기들 나라를 통치하고 있으며, 세상이 다 로마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때였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고 그들의 스승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아니었는가? 그러나 그들은 보냄을 받았다. 만일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권능과 더불어 파송받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복음 증거를 힘써야만 한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사람들을 위하여 문화적 업적들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함을 목적해야만 한다. 칼빈은 그의 설교 사역과 저술 활동 외에도 제네바시의 헌법과 법령 등을 제정하는 일에도 관여하였다. 필자가 어디에선가 읽은 바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를 보았지만 칼빈은 제네바시를 위하여 하수 처리 시설도 성공적으로 계획하였다고 한다. 낙스는 시민 정치 문제에 아주 열심이었다. 존 오웬 목사는 올리버 크롬웰의 종교 자문관이 되었다. 존 엘리엇(John Eliot) 목사는 메사추세츠에서 17세기 인디안들의 말을 배우는 일에

아주 분주히 보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보다 더 깊이 미치게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번은 존 번연이 바이올린을 갖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좀처럼 살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그의 땀장이 기술을 활용하였고 재료들을 주워 모아서 철판으로 바이올린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철판을 자국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두드리면서 모서리 등을 굽혀 가며 만들었던 것이다. 번연은 설교 사역으로부터 쫓겨나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스스로를 위안하거나 자기 개발을 추구하는 일에 시간을 나태히 허비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뛰어난 기독교 문학 작품을 저술하여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올라가는 가파른 길을 오르도록 불렀던 것이다. 그가 바로 바이올린이었다.

우리는 종종 청교도들의 열정을 감탄해 마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문화 명령을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하여는 폭 넓은 전망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하곤 한다. 우리는 그들의 검소 정신, 열심히 일하는 자세, 순수함 등을 기억하면서도 아주 엄격한 리고리즘(엄격주의)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밀톤이나, 스펜서, 그리고 그의 페어리 퀸(Faerie Queen, 스펜서의 기사 이야기 시를 말함 - 역자 주)이나, 또는 존 던(John Donne)의 시들의 문화적 진수는 무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문화 명령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 중에 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취급했던 주요 주제들이 무엇이었는가? 다른 이들을 함양시키는 것이었다.

##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킬 때

이제 새로운 방침 위에서 개개인 성도들이, 또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수정할 계도에 오르고 있음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물론 필자가 의미하는 것은 머리 모양이나 의복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바울이 보여 준, 사력을 다하여 달려가는 운동 선수처럼 크리스찬의 자화상, 사악한 무리들과 더불어 싸우는 용사의 모습, 순례자에 대한 성경적인 모습과 잘 어울리는 생활 양식을 촉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제가 한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가? 잘 먹지만 똥똥하며 무기력하며 심장병으로 죽어가는 미국인들의 모습을 빈궁한 자, 뼈를 깎는 듯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생활하

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적은 연료밖에 없어서 곧 추위를 겪게 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난방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춥지 않은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우리는 훌륭한 오르간과 성가대 및 좋은 찬송을 가지고 있으면서 회중들이 냉담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여성도들이 세계 선교에 더욱 열성이 있으며 남성도들은 뭐하고 있느냐는 말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필자는 선교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우리는 가정에서 요리하는 것, 빨래하는 일 등이 필요하다. 그런 것처럼 선교사들도 그들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어떤 설비가 필요함에도 그러한 것들이 부족함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가 선용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1.5에 이커에 해당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가난한 시골 농부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농부의 마당에 벼 등 곡식이 널려 있고 고기를 말리며, 닭, 돼지들과 뒤섞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테니스 치는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을까? 내가, 한 방에서 여섯 식구가 잠을 자고 아침은 콩보리밥을 먹으며, 지푸라기나 나뭇잎으로 연료를 삼아 밥을 지으며 사는 농부를 보면서 여름철 휴가 때 음향기나 텔레비전, 유람선 등을 즐기며, 낚시 도구들을 챙겨 즐기는 것을 감히 어떻게 말할 수 있으며 “소멸하시는 불”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복종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백여 년 전에 목화 농장에서 노예살이 했던 성도는 엘리야를 휘감아 올라간 두 마리 말이 이끄는 마차와 관련하여 “낮게 날아라, 날아라 마차야(Swing low, swing Chariat)”라는 노래를 불렀다. 우리는 옛 순교자들에 대하여 노래하면서 “그들은 죽음과 고통의 땅을 통과하여 천상으로 승천하였네”라고 마지막 소절을 불렀다. 시적인 표현으로 그다음 구절을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표현하여 노래하여 보자. “오 주님, 기차를 타고 따라가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나요?”

필자는 바울이 고전 7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다 더 명확한 생활 방식을 제시할 수가 없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놓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고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을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니라(26, 27절, 29~31절).

어쩌면 우리는 이 논문에서 전체적인 윤곽을 세우는 데 일련의 도움을 받았다고 본다.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영역들을 분명히 구분짓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필자는 우선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 하였다고 생각한다. 또 이 세대를 살면서 우리가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언급하였다. 필자는 이제 최근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채택한 선교에 관한 선언문을 인용함으로써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우리는 메시아의 구원을 사회적 진보나 발전 및 사회적인 변혁과 일치시키는 것을 반박한다. 사회적 분쟁이 있는 곳에서 발전을 목적하거나 혁신적인 무엇이 개입되는 노력의 결정적인 중요성을 현재 개신교 선교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흐름은 그들이 끌고 가려는 종착지로 몰입해 감으로 우리 시대의 유토피아적인 운동을 벌이는 이들에게 자기 구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교회가 결정한 정의와 평화를 지키는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발전하는 일을 도와 주는 것이 예수의 명령과 마찬가지로 자비를 베푸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실현이라는 것을 선포한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는 여기서 선교에 수반되는 중요한 것들과 선교의 다양성을 보게 된다.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메시아의 평강에 대한 사인(Sign)으로서 인간다운 회심의 결과들을 확고히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케 된 영원한 효과와는 달리 우리의 모든 사회적 성취와 정치에 있어서 부분적인 성공은 장차 임할 그 나라에 대한 종말론적인 용어 '아직은 아님(not yet)'이라는 사실에 묶이어지는 것임을 강조한다. 또 그 사실이 여전히

죄와 사망, 그리고 아직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의 힘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을 선언한다.

이것은 우리 선교사들의 사역의 우선권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며 또 우리들 자신을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계 21:5)는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사역에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